

2023 제14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INCHEON SEOGU CULTURAL CENTER

2023년 제4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INCHEON SEOGU CULTURAL CENTER



함께 나누는 문화가 있는 삶

가정의 달 5월, 허암 정희량 선생의 선비정신을 본받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기량을 뽐내며 예술적 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 2023년 제 14회 허암예술제가 열렸습니다.

2023년 제 14회 허암예술제는 ‘허암사상’, ‘사과’, ‘봄날’, ‘열쇠’라는 백일장 시제와 ‘꽃길’이라는 미술 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약 1천여 점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었고 허암예술제에 가져주신 관심을 보며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문화예술의 힘, 문화예술이 전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올 해 진행되는 제 14회 허암예술제는 시상식 행사뿐 아니라 공연, 문화예술체험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해 더욱 다채로운 예술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시상식 행사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풍요로운 여가, 삶의 회복 등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대회가 더욱 빛날 수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참가해주신 백일장, 미술 대회 수상자의 작품을 모아 우수작품집을 발간하였사오니 삶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시고, 모든 참가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많은 시민의 더 많은 행복과 전국의 우리 이웃의 경험을 오래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돌아오는 제 15회 허암예술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 군 섭

: 축하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전국에서 모인 수상자분들의 기쁜 미소,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시민분들의 박수, 웃음 소리를 함께 들으니 제 14회 허암예술제는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을 넘어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제 14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은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여 우수한 시, 개인의 삶이 녹아있는 수필, 다채로운 그림 작품을 모아 발간되며 전국 곳곳에 배부되어 문화예술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께 공감과 위로를 전달받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전국대회로 진행된 허암예술제를 통해 인천 서구의 문화유산과 지역의 인물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쉬어갈 수 있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 제 14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허암예술제를 준비해주신 인천서구문화원 직원 여러분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일상에 문화예술의 풍요와 건강,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홍입니다.

〈2023년 제14회 허암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수
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구의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군섭 서구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
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암예술제에서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선보이며 수상하신 학생 여러분에게도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걸지령(人傑地靈), 뛰어난 산수를 지닌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 역시 뛰어난 산수 덕분에 조선시대 문신으로 유명한
허암 정희량 선생이 일찍이 서구에 터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는 조선
시대 문인부터 독립운동가까지 숭한 인재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허암예술제에 출품된 작품을 보니 서구가 인걸지령이라는 말이 더욱 맞는 듯
합니다. 작품은 저마다 개성이 있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예술제를 통해 마음속
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더 큰 세상, 더 나은 세상을 꿈꾸
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내일보다 기대하며 서구를 대표하
는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서구를 대표하는 예술제인 허암예술제는 지역의 문화를 발전, 계승하고 있
으며 학생들에게 무한한 자유와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문화도시 서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시길 당부드
립니다.

문화가 곧 국가경쟁력인 이 시대에 더 많은 학생이 문화적 자유를 만끽하고
예술적 창조력을 가감 없이 펼칠 수 있도록 저 역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4회 허암예술제 개최와 우수작품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참가한
학생들과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 교 홍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를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제 14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본 행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군섭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 원장님과 서구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선비의 정신과 아름다운 시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예술성으로 이름을 남긴 허암 정희량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허암예술제가 올해로 14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유서 깊은 예술제가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허암예술제는 옛 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예창작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구를 넘어 우리나라의 예술성을 꾸준히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뜻 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서구문화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작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림과 글을 통해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감정을 공유하고, 그 감상을 표현함으로써 또 하나의 예술이 됩니다. 허암예술제와 같은 대회에서 창작과 표현을 체험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예술적 감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런 기회가 모여 인천 서구와 대한민국이 보다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 동력이 되어 한국의 문화예술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작품 하나하나가 서구와 대한민국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원은 허암예술제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열어 애향심과 함께 지역 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서구는 물론 대한민국의 문예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것을 기대하며, 저 역시 인천 서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서구문화원과 함께 멈춤 없이 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4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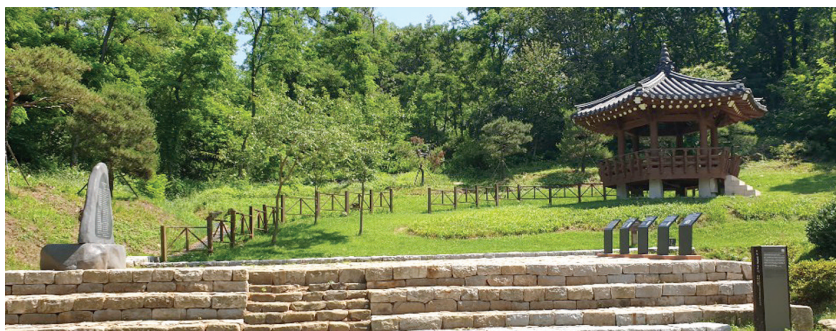
인천 서구를 국회의원 **신 동 근**

허암 정희량 虛庵 鄭希良

정희량은(1469~1502)은 서울 출생으로, 본관은 해주, 자는 순부(淳夫), 호는 허암(虛庵)이다. 조선 중기 사림 학파를 이끈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1491년(성종 22)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성종 승하 후 궁중에서 불교의 재(齋)를 올리자 이를 금하는 상소를 올려 해주에 유배되었다. 1495년(연산군 1) 별시문과에 급제, 이듬해 사관인 예문관 검열이 되고, 외교문서의 교정 및 수정을 담당하던 승문원의 권지부정자에 임용되었다. 1497년 예문관 대교로 연산군에게 임금의 행해야 할 10개조의 상소를 올렸고, 다음 해 선무랑 예문관 봉교로서 『성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498년 사초문제로 무오사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탄핵을 받아 장(杖) 100대, 유(流) 3,000리의 처벌을 받고 의주에 유배되었다가, 1500년 5월 김해로 옮겨졌다. 다음 해 풀려난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향에서 시묘하다가, 앞으로 닥쳐올 갑자사화를 예견하고 조강(祖江)에 신발과 의복을 남겨둔 채 사라져 허암산에 수년 간 은거하였다. 이때 정희량의 아우이자, 경상좌도수 군우후를 지낸 정희신(鄭希信)이 형을 돌보기 위해 지금의 검암동에 입거하였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정희량은 후일 묘향산 등을 유랑하다 평북 정주에 입거하였다고 전해진다.

정희량은 문학에 조예가 있었고, 음양학(陰陽學)에도 밝았는데, 실록에는 “그(정희량)가 복서(卜書)보기를 좋아하며 매양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길(吉)한가 흉(凶)한가를 먼저 점쳤었다.”고 기록 하였다.



허암 정희량 유허지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8호)

『허암집』

『허암집』은 허암 정희량의 학문과 일생을 기록한 문집으로 조선시대에 3번, 일제 강점기에 1번, 모두 4번에 걸쳐 간행되었다.

『허암집』이 처음 간행된 것은 1511년(중종 6)으로 그와 학문적 교유가 있었던 청해군(靑海君) 이우(李偶)와 김사형(金士衡)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허암이 유배생활을 했던 의주와 김해에서 지은 시들을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그 후 정희량의 후손인 경상도 관찰사 정조(鄭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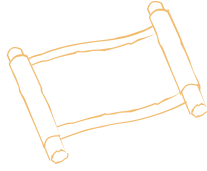
1621년 두 번째 간행하였고, 1897년 정희량의 11세손인 정광숙(鄭光淑) 등이 세 번째 간행을 하였다. 그리고 평안도 정주(定州)의 허암 후손들은 허암을 기리기 위해 1930년 허암사(虛庵祠)라는 사당을 세우고, 1940년 14세손 정종하(鄭宗夏)·정종은(鄭宗殷) 형제가 지방 유림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증보하여 네 번째 『허암집』을 연활자(鉛活字)로 간행하였다.

『허암집』에는 허암이 지은 시와 허암의 학통·가계·행적 등이 실려 있으며 특히 1940년에 간행된 『허암집』에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허암의 평안도 정주 입거 후 부터 생을 마치기까지의 기록이 실려있다.



『허암집』

임금의 덕에 대한 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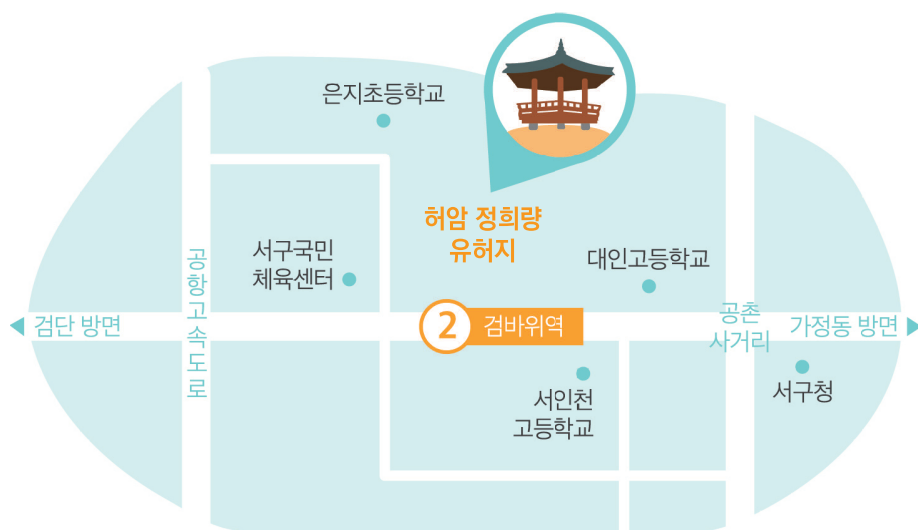
허암 정희량은 선비이자 관리로서 성품이 매우 올곧았다. 1495년(연산군 1), 그는 궁중에서 올리는 불교 의식이 그릇됨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를 다녀오게 된다. 1497년, 예문관 검열이었던 정희량은 폭군으로 평가 받는 연산군에게 임금이 행하여야 할 10가지 덕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이처럼 그는 남다른 기개가 있는 선비였다. 허암의 상소는 『연산군일기』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정군심(正君心)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 납간쟁(納諫諍) 간쟁을 받아들이는 것
- 경대신(敬大臣) 대신을 공경하는 것
- 숭학교(崇學校) 학교를 숭상하는 것
- 신상벌(愼賞罰) 상벌을 삼가는 것
- 근경연(勤經筵) 경연을 부지런히 하는 것
- 판현사(辨賢邪) 어짐과 사악함을 구별하는 것
- 억환시(抑宦寺) 내시를 억제하는 것
- 벽이단(闕異端) 이단을 물리치는 것
- 절재용(節財用) 재물을 절약하는 것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1일 경술 4번째 기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8호

허암 정희량 유허지 찾아오는 길



지하철

인천지하철 2호선
검바위역 하차 1번출구



버스

1번, 13번, 90번, 93번
700-1번, 310번, 800번
검암사거리 정류장 하차



자가용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 60-5

허암예술제 수상자

백일장

장원	운문	나루고등학교 3학년 2반	이하늘
차상	산문	경기도 고양시	최양수
차중	운문	가정초등학교 5학년 5반	이예인
	산문	경기도 부천시	김태현
차하	산문	금마초등학교2학년 2반	김가온
	운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종근
참방	산문	불로중학교	남성현
	운문	태랑중학교1학년 8반	정다원
장려	산문	백운중학교 1학년 3반	이승아
	운문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1반	김민기
	산문	인천광역시 서구	김지영
	운문	경기도 시흥시	김수현
	산문	창원초등학교 6학년 2반	심규민
	운문	서울중대초등학교4학년 7반	안서윤
	산문	세종가락초등학교 4학년 1반	이효주
	운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야옥
	산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경준
	운문	장유초등학교 4학년 1반	김예성

CONTENTS

허암예술제 수상자

미술

금상	이삭어린이집 꿈이가득한반	허선하
	샘머리유치원 샛별반	백채원
은상	행복가득동화유치원 도담다담반	조우근
	월드유치원 샛별반	임시윤
	인천예일유치원 풀잎반	정로희
동상	드림유치원 스트로베리반	이루다
	새싹친구어린이집 창익반	엄하은
	예능영재유치원 예일반	길나운
	삼천병설유치원 빨강반	박요한



2023년 제14회 허암예술제

수상작 - 백일장





농익고 따뜻한 정감의 향연

심사위원장 문 광 영

(문학평론가,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먼저 2023년 제14회 허암예술제 전국 백일장에 응모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백일장에 제시된 글제는 〈허암 사상〉, 〈사과〉, 〈봄날〉, 〈열쇠〉였는데, 이에 시 부문은 636편, 수필 부문에는 126편이 접수되었다. 이들 작품을 놓고 우리 심사위원들은 1차 예심과 2차 본심으로 나누어 심사한 다음, 최종 시와 산문을 함께 놓고 순위를 정하였다. 최종심 과정에서 심사위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언어예술로서 작품이란 모름지기 남다른 사유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감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문학은 또 언어를 매재로 소통하기에 작품의 형상화에 있어 환기력이 높은 세밀한 언어 운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범한 생각이거나 치기 어린 뻔한 내용,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작품, 두루뭉술한 표현은 좋은 호응을 얻을 수가 없다. 또한 시나 산문은 농익은 자기 체험이 반영되어야 한다. 체험에서 빚어진 남다른 느낌이나 생각, 상상된 것, 혹은 살아가면서 보고 겪은 일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 의미부여로서 그 어떤 자양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학은 체험적 대상에 대한 나름의 정신, 혹은 정서의 옷을 입히는 작업인데, 이를 위해서 평소 필자는 풍요로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작품 속에 자기만의 사유나 정감을 풀어내어 독자들에게 어떤 감동, 울림, 들림을 주어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문학적 글쓰기에서 필자가 소재를 갈무리하는 언어적 축수는 충만하면서도 날카롭다. 마치 대장장이가 무쇠를 가지고 불에 달궈 메질을 하고 물에 담금질하여 칼을 번뜩이게 만들 듯, 좋은 필자가 되려면 연금술의 언어적 축수로 정신의 칼로 만들어가는 장인 정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시나 산문에서 자기 체험을 글로 형상화할 때 외면세계를 보여주는(showing)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내면세계로 말하는(telling) 부분이 있다. 예로부터 이를 ‘선경(先景) 후정(後情)’이라 했다. 전자의 선경(先景)만으로 보여주는, 곧 단순한 사실의 보고나 체험의 기록만으로는 글이 되지 못한다. 또한 후자의 후정(後情) 일변도의 추상적 느낌이나 해석, 생각만으로도 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어울려야 된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그 대상이나 체험한 것을 보여주면서,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느낌, 사유, 혹은 상상, 통찰한 내용의 옷을 입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시인들이 산문시로 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시와 산문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식 배설에 그친다는 데 있다. 이번에 응모된 작품들 대다수가 그러한 작품들이 많았다. 연이나 행간 처리만을 한다고 시가 되는가. 진정 산문시로 쓴다고 해도, 남다른 느낌의 깊이, 비유적 이미지, 혹은 상상이 들어가야만 한다. 나아가 수필 장르에서도 있었던 사실의 나열만이 아니라, 여기에 남다른 생각이나 깨우침, 통찰의 결과물을 녹여서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언어예술의 미학이란 새롭고 신선하며, 강렬하고 발칙하며 낯선 것들에 있다. 이런 것들이 개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울림을 주고, 감동과 충격을 주는 것이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은 구태연하고 진부한 예술이고, 오래전의 예술이 그래왔다. 이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영예의 장원에 오른 이하늘 님의 시 <봄날>은 길거리 구둣방 할아버지의 쓸쓸하고 애절한 모습을 봄날 이미지에 견주어 농익고도 따뜻한 정감으로 그려내고 있다. 곧 “새벽이슬 가득 삼킨 솔로 누군가의 추억을, 흔적을, 노고를 닦는다”든가, “향기 없는 겨울을 오려 가장자리부터 박음질”을 한다는 구둣방의 풍경과 “곰향나무 가꾸어주던 주인의 체취만 남아 점점 굵어지고 있다”든가, 혹은 “할머니 미소 닮은 벚꽃잎 봄바람 타고 휘날린다” 등 할아버지에 깊이가 다가가 봄날과 조응된 생동감 있는 표현의 이미지가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적막했던 구둣방에도 생기 도는 봄색”을 노래한 결구 처리에서는 화자의 따뜻한 시선이 인상 깊었다.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구



듯방 풍경, 여기에 할머니를 잃은 할아버지의 삶을 꿰뚫어 보는 정치한 눈썰미, 이를 봄날의 시정으로 이끌어가는 깊은 사유, 이를 맛깔스럽게 구사하는 표현력과 작품을 끌고 가는 능력이 돋보였다. 시인으로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차상 수상작인 최양수 님의 산문 〈할아버지 열쇠〉는 신비한 보물섬 같은 할아버지의 세 평 열쇠가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필 내용 역시 절절한 감동으로 다가와 독자에게 큰 울림을 주는 수작이다. 아무리 열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도 제 짝이 아니면 결코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다는 걸 배운 손자가 치매로 인해 기억이 잠겨버린 할아버지가 꼭 맞는 기억의 열쇠를 찾길 기원한다는 내용이 참신했다. ‘기억을 가두는 가혹하고 무서운 병’이라는 치매, 그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소망하는 손자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으며 작품 구성이나 문장 구사에서도 깔끔했다.

차중 수상작에 오른 이예인의 시 〈사과 같은 얼굴 빛〉은 동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친구와의 우정(友情)을 상큼하고 재미있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무엇보다 이 시는 주어진 시제 ‘사과’라는 소재에 밀착, 몰입하여 자기만의 따뜻하고 깊은 우정을 그려냈다는 점에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이 시에서 형상화 장치의 하나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다’라는 뜻의 ‘사과’(謝過)와 ‘먹는 과일’로서의 ‘사과’가 동음이의어로 차용되었다는 점이다. “사과는 해도 아주 사소한 복수를 해야지”하면서, “작은 박스들을 겹겹이 넣어 그 속에 사과를 넣어놔야지”, 그리하여 “까다까 힘들어 풋사과처럼 초록색이 된” 친구를 연상하는 pun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시인들이 이 ‘언어유희’(pun, 말장난, 말재롱)를 곧장 사용하곤 하는데, 시를 익살스럽거나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같은 차중 수상작인 김태헌의 산문 〈산은가(散隱歌)〉는 허암 정희량(鄭希良, 1469~1502) 선생의 지고한 삶을 기리고자 하는 글로서, 본 백일장 행사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산은(散隱)’은 정희량의 또다른 호(號)이다. 허암은 조선 연산군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이 되었다가 왕의 비행을 자주 지적하고 소장(疏章)을 지은 죄로 귀양 간 인물이다. 그는 시문에 능하고 음악학에 밝았으며, 고뇌와 속세를 벗어난 높은 절개로 선비정신의 삶을 살아왔다. 필자는 이러한 허암의 소소한 일상적 삶의 서정을 봄날에 대입하거나, 궁핍하고 소탈한 귀양살이의 정감이며, 고고한 ‘산은’의 정신을 자연스럽고도 애뜻한 문장으로 그려냈다. 나아가 허암의 선비정신

을 놓고 작금의 정치 현실을 빗대어 비판한 시사성도 돋보였다.

이상, 장원에서 차중까지만 심사 소감을 적어 보았다. 예년보다 시 부문에서는 아름다운 서정을 담으려고 고심한 흔적들이 보였고, 산문은 생동감 있는 체험을 담아 감동적 울림으로 다가서려는 작품들이 많았다. 다만 탄탄한 문체와 구성력을 갖추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시나 수필 작품성의 논할 때, 독자들에게 진실성으로 다가가 깨우침의 감동, 통찰의 시선으로 승부를 거는 작품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술 미학적 측면에서 텍스트 자체에 한정할 때, 발상의 전환이나 예기치 못한 반전, 충격적인 결말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작품의 경우, 또 다른 묘미가 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다.

문학적 글쓰기에서 주어진 소재에 대한 착상과 더불어 중심 소재에 몰입하는 되새김질은 작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된다. 한마디로 글쓰기란 건축물을 짓는 행위와 같은 것, 그 설계도는 발칙하고 파격적이어야 하고, 그 기초 공사인 뼈대의 구성에서부터 인테리어라는 살을 붙이기까지의 형상화는 매우 정치하고 밀도가 높아야 한다. 특히 내가 쓴 글에서 새로움, 생동감, 감동, 재미, 통찰 등이 있는지 없는지 필히 살펴볼 일이다.

끝으로, 조선시대의 문신 허암 정희량의 선비정신을 기리고, 계승코자 하는 이번 전국 허암예술제 백일장에 응모한 많은 분들께 깊은 격려와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심사위원

김영덕(문학평론가)

김진초(소설가)

성영희(시인)

유영애(시인)

차현숙(시인)

허문태(시인)

문광영(문학평론가)



봄날

나루고등학교 3학년 2반 | 이하늘

시청역 7번 출구
새송이 버섯 같은 건물들 사이
모퉁이 옆 작은 구둣방

할아버지는 빗 바랜 앞치마 입고
새벽 이슬 가득 삼킨 솔로
누군가의 추억을 닦고
흔적을 닦고
노고를 닦습니다.

목련이 기지개를 피는 날에도
매화꽃 피는 소리가 제 주인을 찾지 못해
사경을 헤맬 때도
할아버지는
지붕 위 걸터 앉은 낙화들을
지우려고 애씁니다.
할아버지 등에서 자라던 곱향나무
가꾸어주던 주인의 채취만 남아

점점 곱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재가 피어난 계절을
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푸른빛 숨결 불어올 때
난새처럼 날아가버린 할머니

서리 낀 창문 틈에
혹여 봄 내음 스며 들어올까
향기 없는 겨울을 오려
가장 자리부터 박음질 합니다.

여생을 약속한 새끼 손가락 하나는
영원히 설한 속 간혀 삼니다
할머니 미소 닮은 벚꽃잎
봄 바람 타고 휘날리면
어스름한 새벽

철망치 두드리던 할아버지에게도
찬란한 봄이 올까요.

적막했던 구뚝방에도
생기도는 봄씨가 틀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열쇠

경기도 고양시 | 최양수

할아버지는 열쇠수리공이었다. 열여덟 살 때부터 어깨 너머로 열쇠 기술을 배워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왔다. 세 평 남짓한 열쇠가게가 할아버지의 일터이자 세상이었다.

어린 시절 나에게 그곳은 마치 신비한 보물섬과 같았다. 열쇠가게로 들어서면 수많은 열쇠와 자물쇠들이 벽면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아래로 열쇠 재료와 제작 기계, 드릴, 용접기 등이 진열돼 있었다. 비좁아서 발 딛기도 어려운 공간이었지만 나는 가게 안에서 풍기는 쇳덩이 냄새가 좋았다.

당시는 집 열쇠가 필수품이던 시절이었다. 가족 모두가 열쇠를 가지고 다녔고, 혹시나 안가지고 나오거나 잃어버리는 경우엔 낭패를 보기 일쑤였다. 그만큼 열쇠는 소중한 존재였다. 나 역시도 할아버지가 만들어 준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끈에 걸어서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다.

할아버지의 열쇠가게엔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갔다. 닫힌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 당황한 표정으로 열쇠를 복사하러 오는 사람 등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달라도 난처한 모습은 모두 같았다.

할아버지 가게로 전화가 오면 할아버지는 철물통을 자전거에 매달고

달려갔다. 아무리 굳게 잠겨 있던 자물쇠라 할지라도 할아버지의 손이 몇 번만 움직이면 바로 열렸다. 팔짝- 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뭉쳐있던 할아버지의 미간도 스르르 풀어지곤 했다. 어린 내 눈에는 열쇠들이 모두 똑같아 보였는데, 아무리 열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도 제 짝이 아니면 결코 자물쇠는 열리지 않는다는 걸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다.

손재주가 좋았던 할아버지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없었다. 할아버지는 내 장난감도 직접 만들어주었다. 장난감 자동차도, 로봇도 모두 할아버지의 손에서 탄생했다.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할아버지의 손은 맥가이버와 같았다. 나는 열쇠가게를 놀이터 삼아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성장했다.

고등학생이 되어 진로 문제를 놓고 부모님과 불협화음이 날 때 나를 유일하게 지지해준 사람도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내게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보다는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조언 해주었다. 할아버지는 반항기 가득한 손자의 마음까지도 모나지 않게 꺾고 다듬어 주었다.

꿈을 좇아 살다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네 인생에 맞는 열쇠를 끈기 있게 찾으라.”던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다. 할아버지의 가게에 걸려 있던, 비슷한 듯 다른 열쇠들을 떠올리면서 나만의 열쇠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로 인해 나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올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삶의 열쇠 덕분이었다.

60년 가까이 열쇠와 함께한 할아버지는 힘이 닿는 한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어 했지만, 그 소박한 바람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어느 날

부턴가 물건들을 여기저기에 숨겨놓더니, 나중에는 집도 찾지 못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할아버지의 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녹이 슬고 부식돼 있었던 것이다.

치매는 기억을 가두는 가혹하고 무서운 병이었다.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잊고, 가족들을 잊은 채 매일매일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고 다녔다. 치매가 깊어지면서 당신이 닫힌 문을 열어주던 열쇠수리공이었다는 사실도, 평생을 보물처럼 아끼던 열쇠들의 존재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뽕뽕 닫혀 버린 할아버지의 기억은 때로는 할아버지를 철부지 어린아이로 만들고, 때로는 포악한 노인네로 둔갑시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알싸하게 했다.

할아버지를 가둔 기억의 공간이 더 좁아질수록, 자전거에 철물통을 매달고 나가 닫힌 자물쇠를 똑딱 열곤 했던 할아버지의 옛 모습이 더 그리워진다. 딸깍- 할아버지의 닫힌 기억의 문을 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할아버지는 기억의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아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고 있다.





사과 같은 얼굴빛

가정초등학교 5학년 5반 | 이예인

나는 여름만 되면 달을 먹는다.
친구가 나한테 삐졌단다
같이 놀다가 간식 안 사줬다고 편의점에서 뛰쳐나가 버렸네
편의점 사장님이 나를 보고 웃으신다
사과처럼 빨개진 내 얼굴 당황스러운 걸

내가 먼저 사과하긴 어려운데
친구와 떨어지기도 싫은걸
떨어지면 나를 무시할 테니까

먼저 사과는 해도 아주 사소한 복수를 해야지
웃으며 큰 박스에다가 작은 박스들을 겹겹이 넣어
그 속에 사과를 넣어놔야지

까다 힘들어 풋사과처럼 초록색이 된
그 아이에 얼굴을 보며
난 조심스럽게 풋풋 웃어야지



산은가(散隱歌)

경기도 부천시 | 김태현

“매화 향기 난분분하다. 명지바람에 꽃의 춤사위가 으밀아밀 어지럽다. 미지근한 봄기운 스민 춘삼월, 험봉산에 는개가 솔솔 날린다. 떠나기 싫은 겨울이 소맷자락을 잡지만, 갈마드는 봄이 어기차게 불어온다. 기지개 켜 버들개지에 봄빛이 주르륵 흐른다. 꽃잎 하나가 빙그르르 돌더니 방외거사 탁주 사발에 다소곳이 앉는다. 세속의 티끌조차 벗어버리고 지그시 눈을 감은 허암虛庵이 수염을 쓸어내린다.

귀양의 쓰라림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삼각산 뒤로 하던 날, 처연하던 식솔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한양에서 삼천리 밖 의주는 궁벽했다. 솔부엉이와 소쩍새 소리에 밤을 뒤척인 지 두 해째. 박주산채로 끼니 때우고 초목을 베개 삼았다. 서슬 퍼런 권력 앞에 목숨 지키는 것도 부질 없는 일이다. 서릿바람에 낙엽 덮고 한뼉잠을 자며 세상을 읽는다.

개다리소반에 탁주 한 사발 올려놓고 별자리를 살핀다. 용수로 거르지 않고 세마포로도 짜지 않아 걸쭉하다. 작은 잔에 예를 갖춰 마시는 소주보다 큰 사발로 거뜬히 기울이는 혼돈주混沌酒는 자연처럼 순박하다. 맑은 물소리와 청아한 새소리에 귀를 깨끗이 씻었다. ‘부질없는 정치판에 더는 기웃거리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비록 유배인 신분이지만, 슬픔 따윈 잊었다. 올곧고 웅장한 기백이 누구에게 뒤지겠는가. 김해로 이배移配되어 서까래 세 개에 이영 올린 초막집. 문지방 넘나들며 정 붙인 구들장에 등을 눕힌다. 무오년처럼 매화가 피었건만 천릿길 한양은 아득하다. 불암산에 올라 천년 가야의 흥망을 더듬는다. 멀리 펼쳐진 세 갈래 강줄기는 여전히 유장하게 흐르지만, 가야금 가락 그치고 바둑 두던 신선 떠나간 칠점산. 구름 뚫린 곳에 하늘이 열리고 바다는 넓고 멀어도 마음 둘 곳 없다.

삼천리강산에 봄이 왔다. 목덕산 산벚꽃도 궁궐을 기웃거린다. 민심은 피폐한데, 당파싸움 여전한 조정에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풋바심하는 보릿고개에 조무래기 얼굴마다 탕자꽃 닮은 마른버짐이 돌아나 핏기가 없다. 풀대죽 쑤어 주린 배에 곡기나마 적셔보는 것이 희망가다. 보리 누름은 질어 가는데 피폐한 민초들 갈 곳 없어 시름만 깊어 간다.

해가 바뀌어도 한양 소식은 매지구름 가득 덮여 암울하다. 구중궁궐까지 봄기운이 미치지 않는 모양이다. 연산의 서슬 퍼런 낮빛이 붉으락푸르락 갈수록 어둡다는 소식이 궁궐을 넘었다. 주지육림과 향락에 용안이 불과해도 웃음기가 없다. 파리한 수염만 부르르 편다는 전갈조차 마뜩하지 않다.

모름지기 왕을 모시는 신하라면 지존至尊의 잘못을 들추면서 목숨을 두려워할까. ‘경연經筵에 충실하고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라’고 상소하는 일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던가. 올바른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뛰어난 지혜는 시기를 부른다고 했다. 나무가 곧으면 먼저 베임 당하기에 굽는다고 하지 않던가. 정치를 떠나면 미움 살 일도 없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긴다. 산수를 벗 삼아 방방곡곡 유람하며 풍류 찾는 신선이 되리라.

시모살이가 끝났다. 단옷날 아침, 신발 벗어두고 김정金淨이 보낸 지팡이 꺼낸다. 허리춤에 기품 있게 신선로 둘러매고 산은의 길을 나선다. 벼슬도 버렸고 정치도 떠났다. 헛되고 헛된 허욕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을 벗 삼으리라. 산문山門에 드니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 호강한다.

동서남북에서 골라온 호박돌 네 개 꺾고 신선로에 물 부어 올린다. 솔방울과 관솔에 붙은 불이 화르르 불땀도 좋다. 달래와 냉이, 쑥과 씀바귀, 고비와 고사리, 두릅과 참취를 빙 둘러 넣었다. 봄별에 살진 잎마다 응골찬 향기가 설설 끓는다. 생김새와 향취가 제각각이지만, 자작자작 끓을수록 어우러진 오묘한 맛의 조화가 향기롭다. 연산군도 모르고 아침배는 더욱 모르는 풍미 가득한 성찬이다. 숨탄것 모두 알거늘, 다람쥐가 코를 벌름거리고, 귀 밝은 직박구리도 눈을 반짝인다. 임꺽정과 마주 앉아 혼돈주가를 읊는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혼탁한 안갯속 아수라장이다. 폭군 연산은 광인으로 기록되고, 글 짓는 정희량은 산은의 길 찾아 신선이 되었다. 유독 달빛 고운 밤, 허암정에서 차 달이는 맑은소리가 들린다. 청사에 귀감으로 빛나는 산은의 정신을 읽는다.



내겐 무서운 봄

인천금마초등학교 2학년 2반 | 김가온

사람들은 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핀 꽃을 찾아다니고 그 앞에서 모두가 활짝 웃으며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봄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는 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꽃에 표족하게 나와 있는 수술이 정말 징그럽고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가족들은 꽃을 무서워하는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예쁜 꽃을 왜 무서워 하냐고 뭐라고 해요. 제 쌍둥이 동생은 거미와 벌레를 많이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아무도 왜 거미를 무서워하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거미는 무서워도 괜찮지만 꽃은 왜 무서우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꽃 사이를 뱅뱅 날아다니는 벌도 무서워요. 어른들은 가만히 있으면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른들에게는 안 무서울지 몰라도 저는 무섭단 말이에요. 벌이 날아다니는 꽃밭 앞에서 사진 찍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가족들을 위해 저는 무서움을 꼭 참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구에서 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저는 벌은 무서워하지만 꿀은 달콤해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벌이 사라지면 맛있는 꿀도 못 먹고 우리 가족이

많이 먹는 과일도 잘 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엄마는 미세먼지가 정말 무섭고 싫대요.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세먼지부터 확인해요. 먼지가 심한 날에는 놀이터에서도 못 놀게 해요.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밖에 나갈 때에도 마스크를 꼭 챙겨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싶은데 저는 비염이 있어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못 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저는 꽃도, 벌도, 미세먼지도 싫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많아지는 봄이 싫어요. 그렇지만 제가 싫어한다고 이 세상에 꽃과 벌이 사라지는 건 싫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니까요. 저는 그냥 멀리서 볼래요. 미세먼지는 제발 몽땅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저도 봄이 좋아질까요? 미세먼지가 사라질 봄날이 올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봄이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할래요.





봄날의 준비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 이종근

내게 쓴 메일함에 화사한 봄날이 왔어요.
새 학년 새 학기 시작을 축하한다고 반 배정이 봄날의 봄처럼 적혀있어요.
엄마가 사준 교복이 옷장에 청순하게 걸려있어요.
신발장에는 예쁜 구두가 어린 주인의 발을 기다려요.

내게 쓴 메일함에 기쁨 넘치는 개학이 다가왔어요.
키 작은 어깨에 둘러멜 가방을 준비했어요.
삼색 볼펜 형광펜 연필 지우개 화이트 플라스틱 자 등등
필통이 엄마처럼 코흘리개 아이들을 하나둘씩 닦아주며
다독거리고 있어요.
요일마다 잘 짜인 시간표대로
책들을 안전하고 맛난 급식처럼 줄 세우고
설렘 가득한 꿈의 노트를 차곡차곡 재어웠어요.

내게 쓴 메일함에 반가운 친구와 사랑하는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등갯길에 활짝 웃는 봄 매무새의 얼굴이 봄으로 보여요.
다정하게 손 흔들며 흐뭇한 눈인사 하고
입 맞추어 교가를 함께 불러요.

내게 쓴 메일함에 부푼 꿈이 봄날로 찾아왔어요.
교실에 놓인 책상 위에 따사롭게 봄 햇살의 봄이 맘에 쏙 들어요.

‘봄을 만끽하고 설레는 봄에 반한 이 발랄한 봄의 등하갯길’





자물쇠가 곧 열쇠이다

불로중학교 | 남성현

생명기술 단원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 아무래도 동물 복제나 유전자 조작과 같은 주제가 흥미롭고, 호기심 갖기에 충분해서 그럴 것이다. 이 중엔 엉뚱한 질문도 많지만 몇몇 질문들은 허를 찌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유전자 주사를 맞으면 쌍꺼풀 수술을 받지 않아도 바로 쌍꺼풀이 생기는지 물었고, 또 다른 학생은 실험용 쥐를 가지고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드는데 그 항체들이 왜 쥐의 항체임에도 인간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보통 쉬운 질문은 바로 답해주고, 보충 심화 설명이 필요한 질문은 방과 후 더 찾아보고 정리하여 다음 시간에 알려주곤 한다.

돌아보면 학창 시절은 물론 최근까지도 나는 주입식으로 지식을 외워 왔다. 질문은 둘째치고 들입다 외웠던 것들이 훗날 오개념이었던 적도 종종 있을 정도로 텍스트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웬만하면 질문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질문을 한다는 건 썩 좋은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업 끝 무렵의 질문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앗아가 친구들의 눈초리를 받게 했다.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

이나 직장에서도 다를 건 없었다. 타인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며 질문을 주저하고, 학창 시절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뭔가 특별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고, 이해(利害)나 질문의 정오(正誤), 주위의 관심 등을 하나 하나 따지다보니, 결국 우리 사회는 질문 없이 정답만을 찾는 모습이 됐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키포인트(Key-Point)는 있지만 락포인트(Lock-Point)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질문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열쇠만큼 자물쇠가 중요하고, 때로 자물쇠가 곧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은 “왜?”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말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면서, 문제상황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적성장이 다발적으로 이뤄지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은 호기심을 갖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습하면서 몰입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즉 내재적 동기화를 통해 기억을 증진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인 호기심을 해결하면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주는 과정을 산파술에 비유하며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왜 사과가 떨어지는가?’와 같은 사소한 질문을 통해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몽골피에 형제나 릴리엔탈, 라이트 형제와 같은 과학자들은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을까?’를 질문했고, 그 덕분에 오늘날 우주

항공 수송 기술이 발달했다. 살레에 핀 곰팡이를 보며 알렉산더 플레밍은 '왜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상구균이 죽어있지?'를 질문했고, 이를 통해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수백만명의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정답만을 찾길 바라지만, 결국 그 시작은 항상 물음표였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이제는 열쇠가 아닌 자물쇠를 쥐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답만을 찾고 외우기를 반복하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해도 눈치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문제기반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법이 해법이 될 수 있고, 직접 질문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질문지 제작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다소 엉뚱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여, 질문 그 자체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다. 무모한 걸 알면서도 꿈꾸고 도전했던 몇몇 사람들 덕에 세상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던가.

한 아이가 다시 찾아와 질문을 한다. 아까 설명해주신 것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머리를 긁적인다. 괜찮다고, 반갑다고,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한 것 없는지 물어보고 아이를 돌려보냈다.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까?' 나보다 애들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들의 질문이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지 모른다. 그리고 분명 학생들의 질문 덕분에 세상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질문, 질문해야 한다.



내 마음속 사과나무

태랑중학교 1학년 8반 | 정다원

친구랑 싸운 날
내 마음속엔 자그마한 사과씨가 심어졌다

다음 날 우울해 보이는 친구
내 마음속 사과나무의 싹이 텔다

다음 날 혼자 걷는 친구
내 마음속 사과나무가 자랐다

또 다음 날 날 힐끔힐끔 보는 친구
내 마음속 사과나무에 꽃이 폈다

또 다음 날 눈이 마주친 친구
내 마음속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또 다음 날 우연히 마주친 친구
내 마음속 사과를 나눠주었다

“미안해”



우리 모두가 지닌 열쇠

백운중학교 1학년 3반 | 이승아

사람이 지닌 열쇠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소리인가 생소하기 마련이다. 긴 인생일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본, 그리고 나의 생각에는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는 것 같다.

여기 한 친구를 소개하려 한다. 상황 설명상 글을 서술하기 쉽게 이 친구를 A라고 소개하겠다. A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반에서 그다지 인기가 있는 친구가 아니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 인기는커녕 약간의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였고, 성격도 소심하며 목소리도 무척 작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할 수 없어 어느순간부터 그 아이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다. 특히 그 친구 스스로도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나역시 그 친구와 같은 조가 되면 은근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좋지 않았고 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A가 어느 날 장기자랑 시간에 춤을 춘 이후부터는 그녀의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그 조용하던 아이가 모두의 입이 벌어지도록 아이돌 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화해 내며 그녀만의 숨은 장기를 보여준 것이다.

열쇠는 무언가를 여는 것의 도구로 대부분 사용된다. 그리고 이것은 열쇠로 여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른 것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열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고, 열 수 있어서 이것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지만 열쇠가 내 손안에 아무리 쥐어진들, 열지 않으면 소용 없고, 비밀 번호를 풀지 않으면 열 수 없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열쇠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구로 이용되는 그 열쇠가 아무리 화려한들 안에 들은 내용물 역시 화려한 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요즘 신식이 아닌 쇠붙이 열쇠 같아도 도어락 기능을 가진 버튼식이 아니더라도 좀 어떤가 그것이 보여줄 놀라운 힘을 우리 모두는 모르고 있지 않는가?

결국 A의 춤 공연이 끝나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녀를 가장 미워하고 은근히 따돌리던 B라는 친구는 그때부터 오히려 친한척을 하며 알 수 없는 묘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힘이 없어 보이던 그녀가 우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곧바로 행동을 바꾼 것이다. 나는 A가 자신에게 꼭 맞는 열쇠를 찾은 것 같아 기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빛나는 줄 알았던 완벽해 보였던 B는 오히려 못한 모습을 더 드러내서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빛나는 시기가 모두 다르고 누구나 공평하게 지닌 열쇠가 있으므로 그것이 지금 비록 열리지 않고, 쓰이지 않아 녹이 슬었다 하여도 실망하지 말고, 또 반대로 내가 가진 열쇠가 영원하거나 최고인 것처럼 굴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쓰다보니 내 자신에게도 조금 부끄러워 진다. 나는 A에게 어떤 아이로 비춰졌을까 나 역시 그녀에게 소리 없는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떠올려 보며 반성 할 수 있었다. 선입견을 갖지 말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입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열쇠를 열심히 빛나게 닦고 관리하자. 언젠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거대한 입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1반 | 김민기

핸드폰이라는 말에는 눈에 사는 악어가 있다.

한 사과에서 태어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며

몸집을 부풀린 악어는

지구에 사는 이들의 손에 살고 있다.

악어는 작고 질척한 눈에 둘러싸여

정중앙에 자리한 한 그루의 아담한 나무를 본다.

새벽이슬이 맺힌 탐스러운 사과 한 알이

오로지 매달려 있다.

악어는 눈에 발을 들이밀며

사냥감을 끌어내릴 때까지 입을 다신다.

사과 한 귀퉁이에 새겨진

악어가 한 입 베어먹은 흔적

샛노란 과육 사이로 끈적한즙이 방울방울 새어 나온다.

하루에도 쉴 새 없이 문지방을 넘으며 드나드는 사냥감
제 눈에 핏줄이 터져 물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올가미처럼 조여오는 늪에서 발버둥 치던 사냥감은
후각을 찌르르 자극하는 단내에 취해
사지를 감싸 안는 늪에 입술을 밀어 넣는다.

또 하나의 사냥감이 사라진 늪 가에는
사과를 향해 얇은 선혈들이 계속해서 그어지고 있다.

사냥감을 제 품으로 당긴 악어는
길쭉한 입을 끌어당겨
지구를 삼켰다.

악어의 가슴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허암을 찾아서

인천광역시 서구 | 김지영

사월 들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불어오는 바람결에 봄 내음이 느껴지는데, 오래도록 가뭄이 들어, 온 천지가 메말라 있다. 그 무렵,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이 여간 반갑지 않다. 그러더니 사월의 어느 주말, 이른 아침부터 봄비가 내렸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허암 유희지를 찾았다. 버스를 타고 유희지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려, 안내 표지판을 따라서 걸으니, 허암 유희지를 알리는 커다란 초석이 나를 반긴다. 허암 정희량 유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에 있는, 허암이 은거하던 옛 집터이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58로 지정되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는 메마른 나뭇가지를 촉촉이 적시고, 숲속의 작은 새싹들이 파릇파릇 봄 내음을 풍겼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정자가 나온다. 지금은 개발이 돼서 주변에 집들이 많은 마을을 형성하고 있지만, 허암이 거주하였을 그 시절, 이곳은 인적이 드문 험준한 산중이었을 것이다. 나는 우산을 들고 유희지를 걸으며, 먼 옛날 이곳을 거닐며 쓸쓸하게 보냈을 선생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작품을 가만히

묵상했다.

매화꽃이 둘러싼 작은 방은 세 서까래 얹혀 있고, 늙은이는 시 읊으며 일 년을 보내었네. 대나무 그림자가 마루에 비춰드니 생활이 그림 같고, 강물 소리가 벽을 흔들어 배 타기가 두렵네.

잠시나마 누워 있을 만한 집 밖의 땅은 없으나 고요한 느낌은 가슴속의 별천지라. 어디서나 안개와 노을을 볼 수 있게 창을 열어두고, 향을 피우고 수양하니 모든 일이 잊혀지네. 매화꽃이 둘러싼 작은방은 세 서까래 얹혀 있고, 늙은이는 시 읊으며 일 년을 보내었네.

허암 선생이 김해에서 귀양살이하며 지은 시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선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시를 보면 선생은 매화꽃이 둘러싼 작은방에서 시를 읊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셨다.

가만히 눈을 감고 선생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지금처럼 매화 향기가 향기로운 봄날에 선생은 안개와 노을을 볼 수 있게 창문을 열어젖히고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을 멀리했을 것이다. 고고하고 기품있는 선생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선생의 하루가 쓸쓸했을 것이라는 내 생각은 이 시를 묵상하다보면 당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서나 안개와 노을을 볼 수 있게 창을 열어두고, 향을 피우고 수양 하니 모든 일이 잊혀지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집에서 선생은 세상 모든 잡념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문학인 정희량(1469~?)은 본관이 해주, 자는 순부(淳夫), 호는 허암(虛庵)이다. 동지중추부사 충석(忠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참의 침(枕)이고, 아버지는 철원 부사 연경(延慶), 어머니는 경간(慶侃)의 딸로 그는 김종직의 문인이었다. 그는 암울한 연산조 시절에 무오사화보다 더 큰 정치적 탄압이 몰아칠 것을 예상하고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시묘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속세를 등지고 사라져, 죽을 때까지 소식도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산수를 떠돌아다녔다. 그러다 보니 그가 어디에서 세상을 떠났는지도 알 수 없다. 허암이 일찍이 어떤 절에 이르러 벽에 다음 시를 써 놓았다.

‘중국에 사신 가는 학사는 새벽에 추위 떨고, 철마 탄 장군은 밤에 관문을 나서네. 산사에 해 높이 떴어도 스님은 안 일어나니 세상 명리가 한가함보다 못하구나.’ 그 절에 사는 중이 이 시를 전하니, 식자들은 이 시가 허암이 지은 것임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게다가 전해오는 기록에 따르면, 전통 음식이자 궁중 음식 신선로는 선생이 유배지에서 풀려나 은둔 생활을 할 때 만든 그릇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해동죽지〉에 따르면 연산군 때 선생이 무오사화로 의주로 귀양 갔다 돌아온 후, “앞으로 더 큰 사화가 있을 터이니 산속에 들어가서 중이 되겠다”라며 지금의 검암동에 있는 허암산에 은거하였다. 이곳에서 ‘밤에 앉아 차를 달이다(夜座煎茶)’ 같은 시를 지으며, 〈주역〉 공부를 하였다.

또한 음양학에도 도통하여 어느 날 신선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진 이후
술한 전설을 남긴 도인으로 회자 되었다. 그리고 선생은 기제패의 원리로
된 가운데가 뚫린 기묘한 형태의 화로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서 산나물
등을 한 데 익혀 두 끼만 먹는 청빈한 섭생을 하였다.

물과 불의 수화(水火) 기운의 조화를 상징한 독특한 이 그릇은 신선의
기품이 있다하여 나중에 ‘신선의 화로’로 불렸다고 한다.

이 같은 일화를 종합해 볼 때 선생은 보기 드문 현인이자 도인이었다.
미래에 다가올 사화를 피해 깊은 산중에 은거하며, 멋지게 사셨다. 번잡한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선생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숭고했는지 알 수 있다.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커다란 나무가 지난 태풍으로 쓰러져 있다.
나무 동지를 피해서 유허지 뒷산을 오르며, 오랜 시간 선생의 발자취를
밟아 보았다. 가까운 곳에 선생의 거룩한 흔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선생의 유허지를 돌아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던 날,
나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선생의 고매한 성품과 모습이 내
머릿속을 감돌며, 부질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나를 깨우쳤다.



허암 정희량을 따라 걷다

경기도 시흥시 | 김수현

검바위역 1번 출구에는
조선의 낮달이 드리워져 있다.
길과 길 사이 현재와 과거가 표지판으로 구분된다.
따스한 봄날 허암의 유허지를 따라 걷노라니
뜰앞에 개망초가 나란하다.
눈을 감고 오백 년의 조선왕조 시대를
거슬러 오른다.
무사의 칼 자락에 날리우듯 선선한 조선의 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힌다.
수많은 문화유산이 꽃피우던 르네상스 시대
무위자연을 추구하던 허암 일지라도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으리라.
개인의 성정이란 잠시 접어두고 충신으로
내달리던 길

곧은 나무에 비친 그의 눈동자가 올곧다.
 사가독서제 발탁으로 더욱더 넓어진 견문
 홀연히 다가가 서책을 가리고 그를 바라본다.
 그의 모습에서 굳은 결의가 묻어난다.
 계단을 따라 오르니 수풀 사이로
 허암정이 고즈넉하게 놓여있다.
 조선의 낮과 밤을 삼켰을 허암정 처마 끝이
 말할 수 없는 외로움으로 구름 조각을 오려낸다.
 레일위를 구르는 지하철은
 철커덕 철커덕
 어느 풍경 소리보다 풍성한 기적소리가
 뒤돌아보는 허암의 유허지를 가득 메운다.
 끝없이 추락하는 외로움을 달래듯이





파란대문 열쇠

창원초등학교 6학년 2반 | 심규민

어렸을 때는 외할아버지 댁에 자주 갔다. 외할아버지 집은 시골이어서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했다. 그래서 나는 열쇠를 들고 사촌형과 밖에 나갔다. 술래잡기를 하며 신나게 놀았다. 한참을 놀고 난 뒤 사촌형과 함께 할아버지 집 앞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었는데 문이 안 열렸다. 그래서 다시 넣어보고 몇 번을 돌려 보았지만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억지로 열어보려고 힘을 주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왔다. 그 아저씨는 우리를 보고 화를 내었다. 알고 보니 그 아저씨의 집이었던 것이다. 외할아버지와 같은 파란색 대문이라 우리가 잘못 찾았던 것이다. 급히 사과를 하고 할아버지 집을 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신나게 노느라 집을 확인 하지도 않고 무조건 열쇠만 밀어 넣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하필이면 파란 대문이 나란히 있어서 우리를 헛갈리게 하다니 속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집은 열쇠로 문을 여는 집이 아닌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다.



친구라는 열쇠

서울중대초등학교 4학년 7반 | 안서윤

새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내 몸은 벌써 쫄쫄
얼어붙어버렸다.

새 학년 첫날인데,
다른 친구랑 말이라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내 마음 속에
내 몸을 녹여줄 열쇠구멍 하나

한 친구가 내 열쇠구멍을
보았나보다.
나에게 다가와 수줍은
인사를 건넨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
열쇠였다는 듯
스르륵 빠지는 자물쇠.



당신 마음에 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세종가락초등학교 4학년 1반 | 이효주

내가 비밀의 열쇠를 갖게 되었을 때는 작은엄마가 내 생일 선물로 작은 열쇠가 딸린 분홍색 일기장을 주셨을 때부터이다. 그 속에 나는 많은 것을 집어넣었다. 억울하게 엄마에게 혼났을 때는 일기장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 속에는 엄마 험담도 살짝 들어가 있다. 히히. 언제 내가 고백을 받았을 때, 너무 신이 나서 일기장에 기쁨을 쏟아 부었다. 나에게 고백한 아이는 뽀뽀로 데이에 뽀뽀로 안에 편지를 넣어서 나에게 고백을 했다. 내 인생 처음으로 고백을 받아보아서, 정말 흥분되었다. 피아노 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한 언니와 헤어져야했을 때도, 일기장에 언니 얼굴을 그리며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랬다.

키우던 거북이가 죽었을 때도, 일기장에 거북이에게 편지를 썼다. 지금쯤 거북이는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찰칵!”하고 일기장 자물쇠를 잠갔다. 그 열쇠가 나에게만 화가 났을 때 마음의 문을 닫는 열쇠이기도 했고, 울고 싶을 때 슬픈 마음을 꺾꺾 누르는 열쇠이기도 했다. 어른들이 말하듯이,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항상 나아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그 작고

조금 녹슨 열쇠를 봤으면, “오, 이거 비밀의 문 같은 것 여는 것 같은데? 나“ 마법이 든 것 같아!!”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열쇠는, 나에게 신기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마법이 든 열쇠도 아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일기장에 마음을 적고 열쇠로 자물쇠를 잠그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늘 엄마와 숨바꼭질을 한다. ‘열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열쇠와 숨바꼭질은 연관이 깊다. 바로 열쇠 숨기기! 뭐, 엄마가 그렇게 비양심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끔 엄마가 나를 혼내고 난 다음날에 “아, 효주야! 혹시 열쇠 어디 있는 줄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 엄마는 “에이, 뭐 훑쳐볼 시간이 있어야지. 안 봐, 안 봐.”이러시지만 나는 못 믿겠다. 그때부터 숨바꼭질이 시작된다.

필통 속은 많이 숨겨보아서 엄마가 잘 알 것이다. 그러면...아!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니까, 다이어리 속에 숨겨놓아야지! 라고 내가 생각하면, 또 엄마는 엄마대로, ‘음, 저번에 필통 속에 숨겨놓았으니, 필통 속에는 없을 거야.’하고 생각하실 것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엄마가 내 일기장을 훑쳐보실 만큼 비양심적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항상 혼나고 난 다음날에는 안전하게 숨겨놓아야 한다. 왜 혼나고 난 다음날에는 조심해야 하나고? 내 생각에는 엄마가 미안하셔서 내 마음을 보시려는 것 같다.

후! 이제 열쇠와 숨바꼭질이 연관이 있는 이유를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열쇠 숨바꼭질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아마도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숨바꼭질을 하다가 내가 열쇠를 못 찾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딱히 설명해줄게 없을 것이다.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평소처럼 열쇠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내 기억력이 안 좋은 것인지, 열쇠가 발이 달려서 도망을 간 것인지, 열쇠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당황해서 엄마, 아빠를 총동원해서 열심히 열쇠를 찾았다. 어휴- 한참 찾아도 안 보이기에 그냥 포기하자... 라고 생각하며 공부하려고 연필을 꺼내는데! 연필 뒤에 가려져 있던 열쇠가 반짝 빛났다. 엄마, 아빠가 한숨을 쉬신 것은 당연하다. 해헤, 그렇지만 나는 기분이 좋았다. '잃어버리는 것 보다는 낫지-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내가 열쇠 숨바꼭질하고, 열쇠를 잃어버리면 총동원해서 꼭 찾는 이유가 바로 내가 열쇠를 아끼기 때문이다. 보통 여자아이들은 문구점에서 작은 다이어리를 사서 열쇠로 잠그고 자랑하면 끝이다. 오랫동안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감정, 슬픔의 문, 화의 문, 억울함의 문을 잠그고 끝을 마무리하는 이 열쇠가 좋다. 미래의 내가 이 일기장을 본다면, 미래의 나 곁에는 열쇠가 있을 것이다. 즉, 열쇠를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말이다. 어릴 때에는 이런 다이어리를 예쁜 것, 사치품으로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친절한 친구로 생각한다. 내 사촌동생이 10살 쯤 되면, 동생에게 일기장을 선물해주고 싶다. 동생도 나처럼 슬픔의 문, 화의 문, 억울함의 문을 만들어 가고 열쇠로 잠글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조금 더 크면,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때는 열쇠로 “찰각!” 잠그는 경우가 줄어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듯이 일기장에 꺾꺾 눌러 놓는 것 보다 털어놓는 방법이 더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면, 마음의 문은 잠기니까. 자신의 뭉은 잠긴 마음의 문을 열쇠로 여는 일이다. 그 기술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나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희일비하게 되면, 마음의 문은 자주 잠기고 점점 허름해 진다. 결국, 말도 털어놓지 못하고 일기장에다가 터질 듯 쑈서 넣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일기장에 화났었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은 얼마든지 써도 되지만, 그 용량이 꼭 차면 시원하게 비워버려야겠다고... 아까 했던 말을 한번만 더 반복하려고 한다. 빠뜨린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기장에 온갖 감정을 실고 산다. 아까 말을 했었다. 슬픔의 문, 화의 문, 억울함의 문. 그렇지만 이것도 있다. 행복의 문과 즐거움의 문. 어느 문이 자주 열려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한명도 없을 것이다. 나의 소중한 열쇠로 행복, 즐거움의 문을 자주 열도록 노력해보자. 문이 열렸을 때는 아무리 화가 나있는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될 것이다.

추신 : 당신도 당신만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일기장에 당신의 이야기를 써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열쇠로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마음의 열쇠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당신에게는 큰 행복과 즐거움이 한걸음 더 다가설 것이랍니다.



함께 누리는 감동, 문화로 공감하는 서구

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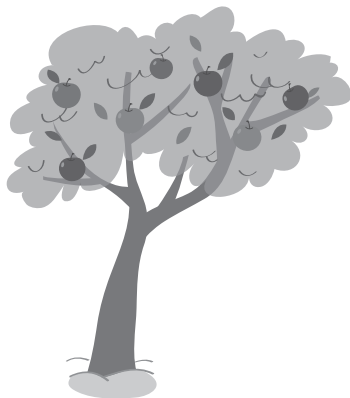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남동구 | 주야옥

어쩔
저렇게 해처럼 예쁠까
저절로 예쁠 리는 없다.

저 속에는
햇바닥 요리조리 굴리며
봄을 잘근잘근 씹어 놓은
나비의 입맞춤 여러 번

저 속에는
땀방울 쓱쓱 닦으며
여름을 조심조심 캐놓은
농부의 손놀림 수십 번이
있었을 것이다.
저 속에는

열매가 단단히
여물어 매달리도록
태풍 조심해라.
까치 조심하라고 하는
나무의 잔소리도 있을 것이다.





이미, 사과는 닿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김경준

영희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묵묵부답이었다. 오늘도 난 그렇게 악몽에서 깼다. 닿지 못한 사과는 엄청난 가속도로 자유낙하하며 내 맘에 내리꽂았다. 미안하단 말도 지쳐갈 즈음 영희가 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내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고 사과의 말을 건네게 되었는데 입 모양을 내는 것조차 힘들었다. 입국하는 영희를 마중 가는 길에 나는 몇 번이고 미안하단 말을 낮은 소리로 되뇌었다. 이 말을 듣던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어젯밤에 티비 못 보게 해서 그런 거야? 난 괜찮아~ 24번에서 재방송하니까 다음에 보면 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마치 영희가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영희가 처음 배운 말은 “미안하다”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늘 누군가에게 죄송하며 살아야 했을까. 막내가 태어난 지 일 년도 안 되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다섯 명의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그때 내 나이 열세 살이었다. 부모에게 한창 어리광 피워야 할 때 네 명의 동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되었다.

도움을 구걸하며 연명하는 것이 내 생존 방법이었다. 염치없게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여야 했기에 나를 성가시게 보는 눈빛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쌀이 떨어져 친척 집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 “죄송한데”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고모는 통명스럽게 “우리 먹을 것도 없으니 이제 우리 집 앞에 얼씬도 거리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매몰차게 대문을 닫았다.

나는 더 이상 미안하단 말을 내뱉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죽도록 일만 했다. 철야 작업을 거듭하며 20시간 동안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다. 이때 일터에서 미숙이를 만났고, 그 친구는 내게 성당에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쌀을 무료로 준다는 이야기에 솔깃하여, 나는 그 주 일요일에 미숙이를 따라 주뻗주뻗 성당에 따라갔다.

수녀님은 환한 웃음으로 나를 맞았다. 미안하다고 한참을 굶신거리야 비로소 부스러기를 건졌던 힘겨운 등가 교환을 초월하여, 오랜만에 아버지가 줬던 무조건적 사랑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녀님은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쉽게 입을 떼지 못했던 그녀는 고민 끝에 ‘입양’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영희를 미국으로 보내면 그 아이는 삼시 세끼 좋은 것 먹으며 좋은 곳에서 교육받고, 너 역시 다른 동생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난 아버지의 유언을 차마 무시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내 손을 붙잡고 남은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고 흐느꼈다. 그 간절한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데 나는 영희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고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았다. 모든 동생을 책임지겠다는 호기로운 결심에 네까짓 게 감히 그런 건방진 생각을 하냐고 불호령을 내렸다. 월세가 밀렸고 먹을 게 바닥난 상황에선 몸을 둘로 쪼개 일한들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다그침에 머리를 힘없이 떨굴 수밖에 없었다.

곧장 막내에게 입양 이야기를 꺼냈다.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언니 오빠들을 두고 혈혈단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한 아이는 생떼를 부렸다. 나는 우는 아이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감정에 동요될 여지가 없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네가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떠나야 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 아이에겐 왜 습관적으로 내뱉던 미안하단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내 선택에 대한 자기 최면의 결과였다. 이것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죄책감을 떨기 위해 기어코 나는 입을 닫았다. 내 자존심은 가없는 영희에게만 냉혹하게 승리를 거뒀다.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긴 시간을 건너 우리는 드디어 서로를 마주했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배운 쓰리라든 말을 내뱉기도 전에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수천 번 반복했던 꿈속의 사과를 다 듣고 있었던 것처럼. 볼 수 없었던 그 눈엔 눈물만 머금고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던 것처럼.



함께 누리는 감동, 문화로 공감하는 서구

마음 열쇠

장유초등학교 4학년 1반 | 김예성

친구와 싸워서
선생님 앞으로 불려갔다

선생님의 따뜻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풀어줬다.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까?

선생님은 초능력이 있나?
눈에 보이는 열쇠도 없는데
어떻게 풀었지?

사람의 마음도 순식간에
풀어주는 열쇠
신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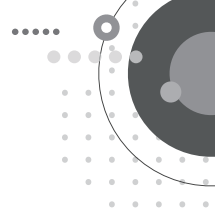
2023년 제14회
허암예술제
수상작 - 미술

**| KAT평생교육협회 대표 홍우희 |**

올해로 14번째로 진행된 허암예술제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58호 ‘허암 정희량 유허지’를 통해 조선시대 문인 허암 정희량의 선비 정신을 이어 받아 백일장과 미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술대회는 5세~7세 유아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내의 유일한 전국 대회로써 인천 지역 말고도 여러 지역에서 400여점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총 9명(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4명)의 어린이들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5세부터 7세를 대상으로 한 미술대회이기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차이가 연령에 따라 크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고, 비교적 다른 연령보다 표현력이 좋은 7세 연령의 아동들에게 수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5세, 6세, 7세 아동이 다양하게 수상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유아 대상의 미술 대회인 만큼 표현력이 조금 서툴다 하더라도 올해 주제인 ‘꽃길’을 아동이 자신의 감성으로 얼마만큼 창의적 소재로 표현하였는가?, 기교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어른의 도움 없이 아동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완성을 하였는가?, 8절 도화지의 화면 안에 주제를 짜임새 있게 구성 하였는가?를 중점적 심사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두 작품의 경우는 단순히 꽃길을 걷고 있는 인물의 표현이 아닌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꽃길의 주제를 표현하였고, 물감과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채색하는 것 이상으로 색지를 이용하여 꼴라주 작업을 가미하거나 찍기 기법으로 꽃길을 표현하는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Every child is an artist.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이다.)”라는 파블로 피카소의 명언처럼 이번 접수된 작품의 주인인 모든 어린이들의 작품들은 그 수준이 꽤나 높았습니다. 어린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서열화하고, 9명의 예술가들을 선별한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 미술대회를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일상생활 안에서 아름다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마음으로 수상작품을 선별하였으니 아쉽게 수상을 하지 못한 우리 어린 예술가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수상을 한 어린이들에게는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허암예술제는 어린이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미술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봄꽃을 한아름

이삭어린이집 꿈이가득한반 | 허선하





함께 누리는 감동, 문화로 공감하는 서구

사과밭에 소풍을 갔어요

샘머리유치원 셋별반 | 백채원





눈꽃이 내려요

행복가득동화유치원 도담다담반 | 조우근





함께 누리는 감동, 문화로 공감하는 서구

가족과 함께 벚꽃 나들이

월드유치원 셋별반 | 임시윤





꽃 밭

인천예일유치원 풀잎반 | 정로휘





함께 누리는 감동, 문화로 공감하는 서구

꽃을 타고 가는 우리들

드림유치원 스트로베리반 | 이루다





엄마랑 나랑 벚꽃놀이

새싹친구어린이집 창의반 | 엄하은





함께 누리는 감동, 문화로 공감하는 서구

가족과 같이 꽃 보러 가요

예능영재유치원 예일반 | 길나운





친구와 손잡고 봄날 소풍가요

삼천병설유치원 빨강반 | 박요한



2023년 제14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 행 일 2023년 7월

발 행 인 정군섭

편 집 주 간 서덕현

편 집 기 획 이도훈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15 쓰리엠타워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표지디자인 아츠비

인쇄·출판 영진종합인쇄(032-425-2199)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작품집은

2차 저작물 활용 동의를 받은 후에 발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